

고집불통 쇼윌터



볼티모어 벅 쇼윌터 감독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완고함이 김현수의 가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편협함으로 흘러갈까 걱정이다.

스포츠동아DB

김현수에 대한 쇼윌터의 속내는?

3안타 경기 후에도 벤치만 지키게 해
현지 언론마저 “기회 더 줘야” 압박
쇼윌터 “표본이 적다” 김현수 외면

볼티모어 김현수(28)를 바라보는 벅 쇼윌터 감독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쇼윌터 감독은 김현수가 3안타로 활약한 1일 시카고화이트삭스전이 끝나고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가 붙었다. “벤치에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성향과 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자신이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타자가 타격감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석에서 투수를 상대하는 것이다. 매 타석 잘 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적응해 나간다. 벤치에서 바라만 보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김현수의 실패, 그리고 변화

김현수가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한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일이었다. 그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0.182로 부진했다. 700만 달러를 주고 영입한 외국인 타자로서 보이는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야를 넘어가는 타구가 없었다. 결국 5드레프트로 볼티모어에 온 조이 리카드(25)에게 주전 좌익수를 넘겨줬다. 그러나 리카드는 타율 4할대의 맹타를 휘두르던 개막 초반과 달리 조금씩 타격감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10경기 타율 0.131로 저조하며 시즌 타율이 0.278로 하락했다.

반면 김현수는 정규시즌에서 홀로 부단히 노력하며 시범경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타 기회마다 안타를 때려냈고, 6경기 중 선발 출장한 4경기에서 3번이나 멀티히트를 때려냈다. 안타를 치지 못한 날에는 볼넷을 2개 얻어내 출루에 성공했다.

●쇼윌터 감독의 꺾이지 않는 고집

처음 볼티모어가 김현수를 영입했을 때 주목한 부분은 출루율이었다. 현재

리카드의 출루율은 0.308이지만 김현수의 출루율은 0.647에 달한다. 표본이 적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주어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더 대단한 숫자다. 그러나 쇼윌터 감독은 한 번 결정한 부분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김현수가 3안타를 친 다음날 경기에서 그를 대타로도 쓰지 않았다. 가슴에 콩 나듯 기회가 주어지면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타격감을 유지하기 어렵고, 선수 스스로도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쇼윌터 감독은 리카드에게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김현수에게 비판적이었던 현지 언론마저 “기회를 더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선수기용의 권한을 지닌 사령탑이 “표본이 적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렵다”며 망설이고 있다. 강정호를 ‘킹캉’으로 만든 것은 부진해도 믿고 꾸준한 기회를 준 구단의 인내였다. 그러나 그런 신뢰 없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현수는 언제까지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야 할까.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코리안 빅리거 경기 결과

3일(한국시간)

박병호 **미네소타**

휴스턴전(원정)

- ▶ 선발출전(5번 지명타자)
- ▶ 3타수 2안타 2타점 1볼넷
- ▶ 시즌 타율 0.250(72타수 18안타)
- ▶ ML 데뷔 첫 3루타, 팀 6-2 승리

오승환 **세인트루이스**

필라델피아전(홈)

- ▶ 교체출전(2번째 투수 · 7회 등판)
- ▶ 1이닝 0실점 0안타
- ▶ 시즌 방어율 1.84(14.2이닝 3실점) 20삼진 7안타
- ▶ 시즌 4홀드, 팀 10-3 승리

최지만 **LA 에인절스**

밀워키전(원정)

- ▶ 교체출전(9회 대타)
- ▶ 1타수 0안타
- ▶ 시즌 타율 0.077(13타수 1안타)
- ▶ 팀 5-8 패배

박성현, 이번엔 일본 정복이다 박채운의 생애 첫 후원사 모자

내일 JLPGA 살롱파스컵 출전
렉시 톰슨과 장타 대결도 주목

“이번엔 일본이다.”

국내 여자골프 ‘최강’ 박성현(23·사진)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정복에 나선다.

박성현은 5일부터 일본 이바라키현 이바라키 골프장(파72·6605야드)에서 열리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 월드레이디스(총상금 1억2000만엔)에 출전한다.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세계랭킹 30위 이내에 들어 출전 자격을 얻었다.

박성현표 화끈한 공격골프가 일본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박성현은 270야드가 넘는 폭발적인 장타를 자랑한다. 국내에선 멀리 쳐 놓고 홀에 가깝게 붙이는 코스 공략으로 2주 연속 우승 및 시즌 3승을 올렸다.

대회가 열리는 이바라키 골프장은 JLPGA 투어가 열리는 코스 중에서도 어렵기로 유명하다. 코스는 길지만 페어웨이는 넓지 않다. 또 그린 주변이 어렵다. 벙커가 많고 그린이 페어웨이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정교한 아이언 샷이 요구된다. JLPGA 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 세팅의 난이도를 조절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를 기대한다”고 으름장을 놔다.



빠박한 일정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2일 일본 현지에 도착한 박성현은 연습라운드와 프로암, 전야제까지 참석해야 한다.

박성현의 실력은 이미 해외에서도 통했다. 국내 개막전 미 LPGA 투어에 출전해 파운더스컵 공동 13위, 기아클래식 공동 4위 그리고 ANA인스퍼레이션에서 공동 6위에 올랐다.

박성현은 “일본 대회는 처음이라 걱정 정도 된다”면서 “코스는 좁고 나무도 많아서 조금 답답하다고 들었다. 그러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 LPGA 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 렉시 톰슨(미국)과의 샷 대결도 관심을 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톰슨의 장타 능력은 박성현보다 한 수 위다. 올 시즌 284.12야드의 평균거리로 이 부문 1위에 올라 있다. 톰슨은 그린적중률 79.25%(2위)로 올해 정확한 아이언 샷까지 장차해 파죽지세다. 2월 혼다 타일랜드에서 우승했다.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보미, 김하늘, 신지애 등이 출전한다. 작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전인지는 아쉽게도 휴식을 위해 출전하지 않는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호반건설과 데뷔 첫 후원 계약
박채운 “우승으로 보답하겠다”

“어, 저 선수는 누구지?”

지난달 29일부터 경기도 용인의 씨닝포인트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6번째 대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오픈, 박채운(23)의 4전 전승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낯선 이름이 눈에 띄었다.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치며 우승 경쟁에 뛰어든 박채운(22)이다.

박채운은 대전제고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4년부터 2부 투어에서 뛰었고, 시드전을 통과해 작년 정규투어 무대를 밟은 투어 2년차다. 올해 상금랭킹은 14위로 어지간한 스타보다 높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과 한 가지 다른 모습이 포착됐다. 후원사 로고가 새겨진 모자가 아닌 옴팡머사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국내에서 골프단을 운영 중이거나 골프선수를 후원하는 기업들에게 여자골퍼는 인기가 높다. 조금만 성적을 내면 역대의 연봉을 받는 건 쉬운 일이 됐다. 몇 년째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박채운의 모자에서 후원사가 없었다.

박채운은 이번 대회에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



투어 2년 차 박채운(오른쪽)이 2일 호반건설과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조인식 후 호반건설 전종규 부회장 대표이사과 박채운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크라운

쳤지만, 고진영과 김민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우승만큼 좋은 일이 생겼다. 대회가 끝난 다음날 처음으로 후원사의 모자를 쓰게 됐다.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원사를 찾는 건 쉽지 않다. 기업의 입장에서라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따른다. 호반건설이 박채운에게 3년 동안 연봉과 동계훈련비 그리고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종 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난생 처음 후원사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게 된 박채운은 “지금까지 후원기업이 없어 속상했다. 우승으로 보답하겠다”며 기뻐했다. 박채운은 5일부터 전북 군산골프장에서 열리는 교촌하니레이디스오픈부터 새 모자를 쓰고 경기한다.

주영로 기자

평창 준비도 촉박한데… 조양호 조직위원장 사퇴

한진그룹 현안 해결에 전념키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양호(67·사진)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한진그룹 내 현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대회 개막(2018년 2월 9일)을 채 2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평창조직위원회가 수장 교체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직위는 3일 조 위원장이 한진그룹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조 위원장은 2014년 8월 어려운 그룹 사정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결국 한진그룹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제3기 조직위를 이끌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경기장 건설 지연, 올림픽 개폐막식장과 경기장 이전 논란, 분산개최 논란 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많은 현안



들을 해결해 올림픽 준비를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통해 “그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모든 임직원과 하나의 팀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돌아본 뒤 “개폐막식장 이전, 분산개최 논란 등 슬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2월 정선과 보광의 테스트이벤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산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는 등 본격적 대회 운영 준비를 위한 기틀을 다졌다고 자부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룹 경영에 복귀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워낙 한진그룹 내 분위기가 급박하게 흘러가면서 조 위원장의 사퇴도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후임자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안병훈이 3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루이지애나TPC에서 열린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연장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했다. 안병훈이 18번홀 그린 앞에서 웨지로 공을 그린에 올리고 있다.

애번데일(미 루이지애나주) | AP뉴시스

안병훈, 연장전 끝에 아쉬운 준우승

PGA 취리히 클래식 뒷심 발휘
세계랭킹 24위로…7계단 상승

안병훈(25·CJ)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총상금 700만 달러·우승상금 126만 달러) 최종일 경기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지만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안병훈은 3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루이지애나TPC(파72)에서 열린 대회 다섯째 3라운드 경기(기상악화로 연기 후 54홀 축소 진행)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쏘아 담았다.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경기를 끝낸 안병훈은 제이미 러브마크, 브라이언 스토어드(이상 미국)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첫 번째 연장전에서 안

병훈은 보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탈락했다. 티샷을 페어웨이 한 가운데 떨어뜨려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냈지만, 두 번째 샷이 러프로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약 85야드 지점에서 친 세 번째 샷마저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네 번째 샷마저 실수하면서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브라이언 스토어드가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했다. 우승을 놓치기는 했지만, 안병훈은 세계랭킹을 31위에서 24위로 끌어올리면서 8월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 주 일본프로골프(JGP) 투어 더 크라운스에서 우승한 김경태(30)는 4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주영로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